

사회

# 아파트 베란다 필사의 구조 20분

### 50대 가장 난간 매달린 채 “자살하겠다” 투신 순간 출동한 경찰이 팔 붙들어 매 스카프로 손목 동여매고 버텨 극적 구조

광주시 서구 금호지구를 순찰하던 서부경찰서 금호지구대 안용수(41) 경위와 김원철(45) 경사가 광주지방경찰청 112 지령실로부터 가족폭행 신고를 받은 것은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께. 안 경위 등은 곧바로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로 출동했다.

5분 뒤 현장에 도착하자 6층 복도에 서부터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안 경위 등은 서둘러 출입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최모(45)씨가 경찰을 보자 갑자기 “죽겠다”며 베란다로 뛰어 매달렸다. 최씨가 베란다 밑으로 떨어지는 모른다든 생각이 침착하게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한 안 경위는 서서히 베란다로 다가갔다. 김 경사가 최씨에게 “선생님 우선 올라와서 이야기하세요”라고 말했다. 최씨는 되레 “다가오면 뛰겠다”며 입포를 냈다.

오후 2시30분, 10여 분이 지나 안 경위 등이 최씨를 설득하며 다가가는 순간 최씨는 난간을 잡고 있던 두 팔을 버렸다. 순간 베란다 난간 사이로 두 경찰은 손을 뻗었고 최씨의 팔을 붙잡을 수 있었다. 0.1초만 늦었어도 최씨는 15m 아래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안 경위 등의 안간힘에도 최씨의 발바닥은 10분간이나 계속됐다. “제발 손을 놔달라. 진짜 죽고 싶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두 경찰의 손에서도 힘이 점점 빠졌다. 금방이라도 최씨의 손을 놓칠 것만 같았다. 김 경사는 가족들에게 “줄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최씨의 아내가 가져다준 스카프를 이용해 최씨의 팔과 자신들의 손목을 묶었다.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안 경위 등은 가족들에게 “119 신고에 신고해 줄 것”도 부탁했다.

이 상황에서 김 경사는 “저도 가

## 구경하기 힘든 새해 달력

광주지역 한 구청에서 홍보업무 담당하고 있는 박모(53)씨는 사무실에 걸어놓은 새해 달력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 예전 같으면 기업이나 타 기관에서 보내주는 달력 중 마음에 드는 달력을 골라 걸어놓지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경기 불황과 디지털기기의 대중화로 달력 구하기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고객과 지인에게 공

### 스마트폰·인터넷 영향

### 불황에 제작도 줄어

짜로 선물했던 달력 인심은 옛말이 된지 오래고 주고 받기 힘든 ‘귀하심 몸’이 되었다. 특히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상용화로 기존 달력은 사라질 위기에 있다.

장 큰 손으로 꼽히는 일부 은행업계는 최근 경비절감 차원에서 내년도 달력 주문을 줄였다. 신세계 백화점 역시 지난해 보다 20% 정도 발행부수를 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밀로 만든 사랑의 찐빵 10일 오후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 노인타운 식당에서 노인들이 우리 밀과 팔로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찐빵을 만들고 있다. /최혜경기자 choi@kwangju.co.kr

실제로 달력 인쇄업체들의 가

## 제8회 모범시민·단체대상 수상자 공모

(개인·단체 : 질서·친절·청결부문)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질서·친절·청결부분에 공로가 크신 개인과 단체를 표창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상수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 다 음 -

- 접수마감 : 2012년 12월 15일(토) 오후 5시까지
- 접 수 처 :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사무실
- 구비서류 및 양식 : <http://www.gjngo.kr//> 커뮤니티 게시판 공지사항
- 기타문의 : 062-227-0402, 010-2627-4702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 2013년도 제2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보육교사 자격 취득 등!!

- 교육인내
  - 교육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 오전 9:30~1:10 / 야간반 오후 6:30~10:10
-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 5,000원
-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2013년 1월 14일(월) 오전 10시
-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2012년 12월 3일(월) ~ 2013년 1월 11일(금)
  -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3년 1월 11일(금)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처 :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학처
- 문의할 곳
  - 교학처 김승호 선생
  - TEL 062)605-1112, 605-1023 FAX 062)572-0264
  - E-mail : [krimsen@hanmail.net](mailto:krimsen@hanmail.net)
  -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번지 광신대학교 교학처

나도 이제 보육교사!  
1년 과정 수료 후 어린이집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교육비(1년액 1,700,000원·2011년 기준)와 훌륭한 교수진이 준비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을 지금 노크하십시오.

★ 보육교사 자격 및 진로 ★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선정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1년)을 수료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에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단, 4주간의 연성실습(10월경)이 가능한 분야여 함)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 인화학교 재판 갈등 일단락

### 고법 “의도 없었다” 설명에 피해자측 “재판 계속”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피해자 등이 검찰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면 서 불거진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피해자 측 변호인 등에게 공판리 과정에 ‘의도’가 없었음을 설명했 뒤 자살예방센터 상담원에게 인계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김 경사는 “나와 같은 가장인 최씨를 꼭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발버둥치는 최씨를 붙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8년 전 이혼한 최씨는 전날 가정폭력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에 화가 나 이날 전 아내(50)와 아들(24)이 사는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의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 주장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며 “어떤 의도를 갖고 재판에 입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는 그럴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화학교 대책위 등이 기피신청을 낸 재판부의 주재로 열린 준비기일에 참석한 것 자체로 향후 공판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일단 인화학교 대책위는 법원과 검찰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지만, 기피신청 당사자인 검찰 역시 재판부 변경과 그에 따른 일정 연기에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고법도 공개 심리까지 하며 기피신청을 고민했으나 내부적으로 이미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희 변호사는 “피해자 등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된 만큼 법원이 무슨 결정을 내리든 재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나원침 (8708) 김종두



## 시외버스 안에서 가스가?

### 광주~나주 운행 차량서 승객 1명 병원 입원치료

달리던 시외버스 안에서 가스가 샅포했다는 승객들의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광신고속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광주에서 나주방면으로 운행하던 160번 버스 안에서 성분을 알 수 없는 가스가 샅포돼 피해를 입었다며 승객 중 1명이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버스운전자 등은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승객 30여 명을 태우고 광주시 광산구 신항동 장암마을을 지나다가 갑자기 승객들이 목이 칼칼하고 차 안

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호소했으며 이후 차를 멈추고 승객들을 다른 차량으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의 신고로 119구조대가 출동했으나 사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 다른 승객들의 요청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기사는 이후 A(여·40)씨와 학생 등 승객 4명을 태우고 나주까지 운행했으며 이후 A씨가 다리가 풀리고 목이 이상하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A씨는 이후 현재 나주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광신고속이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광산경찰은 버스 CCTV와 승객 등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승열기자 srchoi@kwangju.co.kr

## 성추문 피해자 사진 유출 변호사 휴대전화 압수수색

‘성추문 검사’ 사건 피해여성 B씨 사진 유출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변호사가 사진을 유묘한 사실을 확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은 10일 B씨 사진을 송·수신한 것으로 드러난 40대 변호사 김모씨와 일반인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수신 사진을 토대로 역추적한 결과 현재까지 김씨를 포함한 모두 8명이 사진을 유묘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인 관계인 이들은 B씨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6명도 단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휴가나온 군인 주부 성추행

광주동부경찰은 10일 새벽 2시께 동구 산수동 A(여·42)씨의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 집주인 A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박모(19) 일병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은 박 일병이 이날 휴가를 나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박 일병을 관할 헌병대에 인계할 방침이다. /박정렬기자 halo@

## 눈 발자국 때문에- 어리숙한 도둑

○~1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절도 등 전과 10범인 마모(30)씨가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A(여·55)씨의 점집에 침입해 제단 위에 있던 5만원 등을 훔치고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채 숨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는 것.

○~경찰은 “절도 신고를 받고 현장을 살피던 중 종살에 찌른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이 집안 쪽으로만 나있고 바깥쪽으로는 없어 집안을 수색해 제단 커튼 뒤에 숨어 있던 마씨를 체포했다”고 설명.

/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